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탈출기 22:20-26	제2독서	테살로니카1서 1:5-10	복음	마태오 22:34-40
--------	------	--------------	------	----------------	----	--------------

◎말씀 <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 >

오늘 제1독서는 탈출기 2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이며 소제목으로 ‘약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의 앞부분 즉 20장과 21장의 내용을 보면 20장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으로 십계명을 풀이해 주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종에 관한 법’과 ‘폭력에 관한 법’ 그리고 ‘상해와 절도에 관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독서의 핵심내용은 이웃과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22장 전체로 보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한 바리사이들과 논쟁, 사두가이들과의 ‘부활 논쟁’ 그리고 율법 학자의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마태22,24) 라는 구절은 앞에서 말한 사두가이들의 부활논쟁입니다. 사두가이파의 패배(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7형제와 한 여자와의 천국에서의 혼인이야기)를 보고 기뻐한 사람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또 다른 논쟁을 만들기 위해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교의 계명에는 613개가 있었습니다.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시 구분하여 큰 계명, 작은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들 사이에서도 어떤 계명이 첫째가는 계명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가는 계명이 하느님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어느 계명이 첫째가는 계명인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6,4)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벌간의 율법 논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독서 ‘약자보호법’과 탈출기 22장 전체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마태 22,40)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술할 뿐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다른 모습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드러납니다. 결국 사랑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27일 (화)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교무금 주일헌금	\$ 2,400.00 \$ 644.00
10월 28일 (수)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대오) 사도 축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40.00 \$ 167.00
10월 29일 (목)	연중 제30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교구2차헌금	\$ 167.00 \$ 266.00
10월 30일 (금)	연중 제30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150.00
10월 31일 (토)	연중 제30주간 토요일		합 계	\$ 3,834.00
11월 1일 (일)	모든 성인 대축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2명 성인: 66명
교무금 봉헌자	주문엽. 안기창 (10-12월) 송돈희 (7-12월) 이상인 (10-11월) 송민자. 김병길 (9-10월) 김창영 (8-10월) 고원석 (4-10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공동사죄 [共同赦罪/General absolution]

일정한 요건하에 여러 신자에게 성사적 사죄(赦罪)를 공동으로 베푸는 제도.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참회자(懺悔者)가 통회와 고백과 보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제가 사죄를 해주어야 하는데 참회자는 기억에 떠오르는 모든 사죄(赦罪)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트리엔트 공의회). 이러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교회는 개별사죄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공동사죄를 인정한다 (성사적 공동사죄에 대한 사목규정, 1972/새 고해성사 예식서, 60-66항, 1973).

그 요건은 첫째 죽은 위험이 임박할 경우이다. 예컨대 11~12세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나, 2차대전 중 비행기 공습의 위험지역에 있는 일반 신자들에게 공동사죄를 베풀었던 사례와 같다. 둘째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즉 고백하려는 신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당한 시간 내에 그들 각자의 고백을 들을 만한 사제의 수가 부족한 경우나 참회자들이 자기 탓 없이 너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과 영성체를 할 수 없도록 강요당할 경우이다. 중대한 필요성의 존재여부는 교구장이나 지역주교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신자들이 구비해야 할 조건은

- ① 개인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정개하며,
 - ② 남에게 끼친 손해에 보상할 뜻을 두고,
 - ③ 현재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죄를 적당한 시기에 개별 고백할 결심을 해야 한다.
- 이상의 조건이 성사의 유효조건이다.
- ④ 또한 공동사죄로 사함을 받은 사죄는 정당한 이유와 장애가 없는 한 다시 공동사죄를 받기 전에 개별고백을 해야 하며
 - ⑤ 개연적 불가능성이 없는 한 교회법규를 따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백 못한 모든 사죄를 개별 고백해야 한다.

(출처:가톨릭대사전)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주성의 영원한 안식	윤알베르토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김영선.미카엘라 영육건강	아빌라데레사회

◎왜?◎

간
장
종
지

낭떠러지 앞에서 그분 만났고
죽고 사는 고비마다 그분 만났다
믿음도 없는 나는 왜 구해 주셨을까?

내 안의 광야에서, 내 밖의 사막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는데

조창환 토마스 데 아퀴노. 시인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신세계 여 여행사 SHINSEGAE TRAVEL</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실내미사 재개안내(10월4일)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가 가능인원:정원의25%(약60명)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본당소독봉사(매주일 10시미사전후)
미사 참례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자발적인 소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3.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운 신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섬머타임종료(Daylight Saving-ends) 안내
일시:10월31일(토)오후10시를 오후9시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5.공동고백성사
일시:11월1일(일)교중미사 직전
COVID-19로 개별고백성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히 베풀어지는 공동사죄(赦罪)
- 6.위령의 날(11월7일) 묘지미사
위령성월 첫째 토요일에 있는 묘지미사는 교우들의 안전과 방역문제로 본당 주일미사(11월8일)로 대체합니다. 위령미사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 또는 전례부장께 신청바랍니다.

- 7.신자 주소록
게시판 내용 확인하신후 개인정보변경시 구역장이나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8.St. Mary's묘소 한국섹션 근무자 모집
주요업무:한국세션 홍보 및판촉(한국.영어가능 사무실제공하며 주2회 2시간이상근무 문의:고원석 연령회장(916-813-4440)
- 9.마스크 필요하신분은 연락해주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 10.감사합니다
광고비(2021년도):Print N Signs(\$150)
Hand Soap(1갈론):김경숙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전례봉사	연중제30주일(10월25일)	모든성인대축일(11월1일)	평신도주일(11월8일)	연중제33주일(11월15일)
복사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